

교안작성

• 숙달도 : 초급 • 단원 주제 : 한국 음식 • 목표 문법 : —(으) ㄴ적이 있다 • 교육 내용 : ‘ —(으) ㄴ적이 있다 ’의 제시와 연습 • 수업 시간 : 15분
--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학습 자료	시간(분)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그림 자료를 제시하여 오늘 배울 주제를 추측하게 한 후 질문을 통해 문법의 의미를 추측하게 한다. (판서 예) 김치 사진 불고기 사진 - 교사: 칠판에 있는 어떤 음식이 있어요? - 학생1: 김치 - 학생2: 불고기 - 교사: 네, 맞아요 이 음식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나요? - 학생들: 먹었어요 - 교사: 아, 먹은 적이 있군요 - 학생들: 보았어요 - 교사: 아, 본 적이 있군요 - 교사: 오늘은 한국 음식을 살펴보고 ‘ —(으) ㄴ적이 있다 ’의 표현을 익히는 시간을 가질거예요.	김치 사진 불고기 사진	2분	음식의 이름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시	(PPT 자료) ● 문법의 의미를 설명한다. - 교사: —(으) ㄴ적이 있다 라는 표현은 과거의 경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보통 ‘먹다’(손으로 먹는 행동을 보여 주며) 와 같이 동사에 받침이 있을 때는 (판서를 가리키며) 먹다 + 은 적이 있다 -> 먹은 적이 있다 라고 하고	PPT자료	5분	학생들이 문법 설명이 지루해 하지 않도록 적절히 질문을 던지고 생각할 시간을 두고 답을 말한다.

	‘보다’(손으로 보는 행동을 보여 주며) 와 같이 동사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이 있을 때는 (판서를 가리키며) ‘— ㄴ적이 있다’ 즉 ‘본 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예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가다’는 동사 받침이 없으므로 ‘간 적이 있다.’ 라고 하고 ‘만들다’는 ㄹ 받침이 있으므로 ‘만든 적이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표현은 형용사와는 결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쁘다’와 같은 형용사와 결합하여 ‘저는 예쁜 적이 있어요’라고 하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아요			
연습	(앞에는 한국 음식 사진, 뒤에는 동사가 적힌 단어카드(먹다. 보다. 요리하다. 주문하다. 만들다. 굽다. 찌다. 썰다. 자르다.)) ● 단어 카드를 통해서 ‘—(으) ㄴ적이 있다’ 연습 하게 한다. 교사: 그럼 연습 한번 해 볼까요? - 1단계: 단어 카드 한 장씩 골라 한국 음식의 이름을 말하고 뒤에 적힌 동사를 말하게 한다. 교사: 어떤 음식 인가요? 학생: 김밥 교사: 어떤 동사가 적혀 있나요? 학생: 요리하다 -2단계: 배운 표현을 활용하여‘—(으) ㄴ적이 있다’를 대답하게 한다. 교사: 그럼 ‘—(으) ㄴ적이 있다’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학생: 나는 김밥을 요리 한 적이 있어요	앞에는 한국 음식 사진, 뒤에는 동사가 적힌 단어카드	5분	여러 학생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한 학생이 같은 단어카드를 뽑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표현을 익히도록 교사가 유도 한다.

	다양한 단어 카드를 이용하여 ‘-(으) ㄴ적이 있다’ 표현을 익히게 한다.			
활용	● 문장 이어 말하기 게임을 통해서 ‘-(으) ㄴ적이 있다’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게임 방법: 첫 번째 사람이 ‘나는 떡볶이를 주문한 적이 있다’ 라고 하면 다음 사람은 ‘나는 떡볶이를 주문한 적이 있고 불고기를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다. - 이렇게 한 문장씩 붙여 가면서 말하게 하고 ‘단어 카드를 통해서 ‘-(으) ㄴ적이 있다’를 잘못 사용하거나 앞에 나온 문장을 잊어버린 학생은 한국 음식과 관련된 노래를 부르게 한다.	앞에는 한국 음식 사진, 뒤에는 동사가 적힌 단어카드	3분	게임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힌트를 주어 게임의 흐름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단어 카드를 다 활용하면 카드에 없는 음식이나 동사를 활용하여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